

고뇌에 찬 시인들의 '말장난'

남진우·윤의섭·이상호·백무산의 시집을 읽고

차창룡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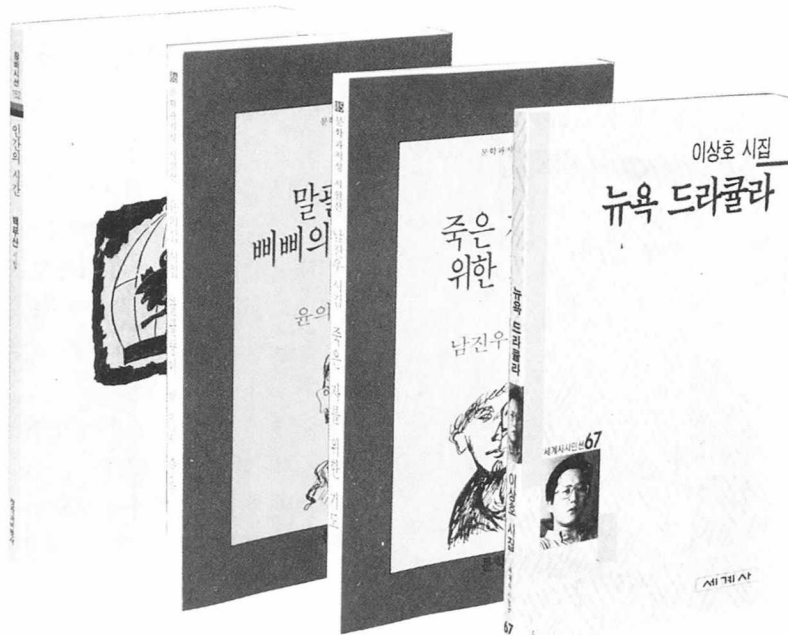
흔히 인생이란 장난 같은 것이라 한다. 인생은 장난이다. 만약 인생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에 의해 배반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장난이 아니다. 만약 인생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런 목표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며 어떤 범죄도 거리낌없이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생은 장난이자 장난이 아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본 죽음

비슷한 논리를 시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시는 분명히 말장난이라 생각하며, 말장난이기에 시를 좋아한다. 시가 장난이 아니라면 시를 쓰지 않겠다. 일에 치여 사는 내가 또하나의 일을 만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인가. 우리는 늘 장난을 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거의 생애적인 것이다. 장난이 없다면 우리가 이만큼 사회화될 수 있었을까?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시인들 중 죽음을 가지고 말장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죽음에 대한 말장난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가? 죽음은 매우 두려운 존재이나, 그것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말장난으로 죽음과 미리 친숙해지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듯하다. 남진우의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윤의섭의 《말괄량이 삐삐의 죽음》(이상 문학과지성사)은 죽음이라는 화두로 한 권의 시집을 완성하고 있다.

남진우는 우리의 몸이 바라보거나 접하는 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죽음에 주목한다. 그는 죽음을 물고기의 몸 속에 있는 가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 가시(죽음)가 물고기를 계속해서 찌르지만 물고기는 모른 채하며 편안하다. 마침내 가시가 물고기를 찢고 빛을 볼 때 죽음은 완성된다. 이에 대해 이광호는 시집의 해설에서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가시는 물고기가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기 내부의 죽음이며 일종의 원죄이고 고난의 상징이다. 살이 떠난 뒤에도 가시는 남아 자기를 온전히 드러낸다. 여기서 가시는 파괴되지 않는 죽음, 더 이상 훼손될 수 없는 생명의 한 기초이다.” 죽음은 생명의 종착역이자 출발지이다.



죽음은 매우 두려운 존재이나 말장난으로 죽음과 미리 친숙해지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남진우와 윤의섭은 죽음이라는 화두로 한권의 시집을 완성한다. 이상호는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말장난을 전개하고, 백무산은 새로운 싸움의 방향을 말장난의 무기(?)로 모색한다.

사랑하고 싶을 때 죽음과 같은 가시가 돋는 이유, 한 방울의 비에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이유, 다른 이에겐 생명의 상징인 물이 죽음으로 비유되는 이유, 무지개가 섬뜩한 비수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또는 죽음)의 양면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집은 그런 양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양면성을 느끼는 것은 읽는 사람의 몫이다. 그는 삶(죽음)을 전혀 색다른 각도로 해석해봄으로써 새로운 오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 오락이 읽는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를 제공한다. 그 가시에 오래 찢리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 시인의 공범자이다.

윤의섭의 첫 시집은 자신의 시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님을 보여주려 애쓴다. 시집의 서시격인 〈제작〉을 보자. 시인은 우려내고 우려내서 더 이상 아무런 향기도 낼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 말한다. 그리고는 “그래도

주전자 속을 두둥실 떠다니며/더 이상 줄 게 없는 내 향기 살던 방에/마지막으로 한차례의 뜨거운 폭포 같은 물을 쏟아주오”라고 말장난하면서 무슨 구원을 갈구하는 메시지를 내보낸다. 그래봤자 허무할 뿐. 이미 모든 향이 나가버린 녹차에 따뜻한 물을 부어 줄 이 누구이겠는가?

자신의 시가 단순히 말장난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의 감로수를 부어도, 그 희망은 말로만 희망인 것이어서 더욱 지독한 말장난일 수밖에 없다. 윤의섭이 남진우와 다른 점은 이와 같은 점에 있다. 윤의섭은 자신의 시가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라 여긴다. 실제 윤의섭의 목소리는 남진우의 그것에 비해 훨씬 절실하다. 절실한 말장난 또한 우리의 의식과 감각을 풍부하게 하는 것임을 이 시집을 보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싸움의 방향

이상호의 《뉴욕 드라큘라》(세게사)는 의사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말장난을 전개한다. 〈내 세포가〉라는 시에서는 화자가 아내에게 자신이 죽거든 장기를 기증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 이유가 바로 말장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임파구의 공격/면역반응/거부반응” 때문에 자신의 세포들이 괴로워서 후손들에게 나쁜 전파를 보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시에서나 가능한 논리이다. 만약 이상호가 의사로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자격미달이다.

그러나 그는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 없는 말장난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그 면죄부를 이용하여 시인은 자신의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세상을 비틀고, 자신을 까발기고, 환자들의 의식을 벗겨보고, 사람의 내장을 해부한다. 해학적 이면서도 슬픈,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끔찍한 인간사가 그로테스크하게 걸린 이상호의 시집은 마치 정육점의 풍경을 연상시킨다.

백무산의 《인간의 시간》(창작과비평사)도 말장난이라 할 수 있을까? 그가 제1회 이산문학상 수상소감에서 한 이야기를 기억한다. “현시기 문학은 노동자 계급이 최소한의 자기 완결 구조를 가지기 위한 투쟁을 지원하고 자각된 인식수단으로써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문학을 하나의 무기로 생각하는 시인의 시를 말장난이라 한다면 시인에게 무례한 언사가 될는지 모른다. 그래도 시는 말장난이다. 그 말장난이 때로 무기가 될지라도, 나는 실제로 이 시집에서(이 시집보다는 첫 시집 《만국의 노동자》에서 더욱) 무기로써의 말장난의 훌륭한 전형을 보았다.

그는 인간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을 구별한다. 인간이 일사불란한 지휘체통이 있어야만 원활한 사회를 유지한다면 자연은 아무런 지휘체통도 없이 소리없이 혁명을 성취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혁명을 자연에서 배우려 하는 것인가? 인위적인 힘으로부터의 단절을 꿈꾸으로써 자연이 혁명을 성취하듯이, 부자연스런 것에 대해 거부하는 쪽으로 자신의 혁명의 방향을 조정하려 하는 것인가? 시인은 말한다. 나무나 바람이나 산이나 물을 만나더라도 말 건네지 말라고, 들꽃이나 나비에게 이름 붙이지 말라고, 그들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침묵하라고. 그것이 새로운 싸움의 방향인가? 이 시집에는 이와 같이 새로운 싸움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인의 고뇌에 찬 모습이 담겨 있다. 그 모색의 긴요한 무기 중의 하나가 바로 말장난이다? 시 〈침묵〉을 읽어보라. 이러한 시인들의 언어들을 말장난이라 해도 좋고, 말장난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말장난이라 해서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라 해서 보듬고 살 필요도 없다. ❖